

미추홀생태문화이음길

코스 안내

미추홀생태문화이음길은 도시의 지형을 이어내는 산, 물, 길을 걸어보고, 생태문화를 종합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길입니다.

[문학산길]

1 인천항교→2 산신우물→문학산(배바위, 4 고마리길, 5 문학산성, 6 정상, 7 제사유적)
8 삼호현고개→문학터널→9 인천도호부

[학산서원길]

1 학익동 행정복지센터→2 양토마을(미군유류저장시설)→3 학익배수지→4 문학레포츠공원
5 학산서원터→6 중바위, 갑옷바위→7 연경정→8 노적봉→9 송암점자도서관

[바다이음길1]

1 원도사 터→2 낙섬사거리→3 청색해안기념비→4 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폐석회 매립지)
5 학익유수지(학익용천갯골)→6 남항근린공원→7 삼각점(바다조망점)

[바다이음길2]

1 능허대공원→2 아람대로→3 아람도공원→4 송도달빛축제공원→5 송도북측수로→6 외암도

[송기천길]

1 송암공원→2 송기천 정비 시작점→3 선학경기장→4 송기천→5 원인재
6 남동유수지(저어새섬)→동막역

[주인수인철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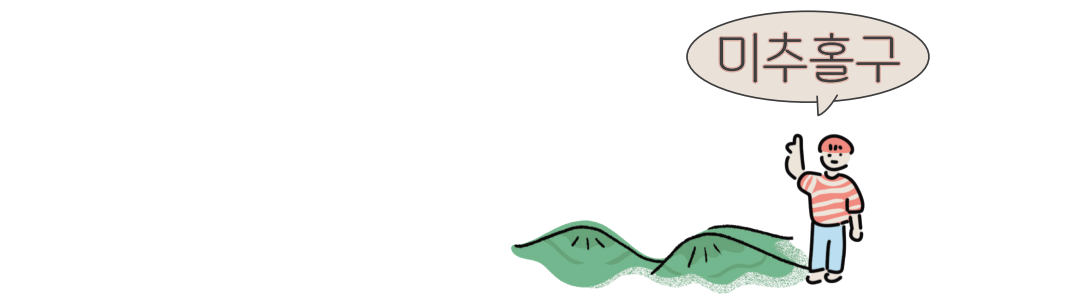
1 제물포역→2 과도교 흔적→3 주인공원→송의초등학교 앞 길→남부역자리→4 수인선 바람길숲
5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6 동양화학선·극동방송

[수봉비룡길]

1 인하대학교(수준원점)→2 비룡실터→3 수봉산(망배단, 인천지구전적비, 재일학도의용군참전비 현충탑)
4 수봉문화회관→5 제물포시장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26 (용현동 81-8)
T. 032-866-3993-4
E. nghaksan@naver.com H. haksanculture.or.kr/
미추홀시민아카이브 archivecenter.net/MichuholCA



미추홀생태문화이음길

미추홀생태문화이음길은 미추홀 도시의 지형을 이어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구분 지어진 행정단위를 넘어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 물, 길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어내어 걸어보고, 보다 큰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 물, 길은 필요에 의해 외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 원형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 구조를 직시하는 과정은 도시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추홀생태문화이음길 코스를 걷다보면, 각 장소들이 어떤 지형 속에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공간마다 묻어있는 다양한 시간 속 삶의 양식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아가 지역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동, 식물, 공간 등이 함께 공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한 사람들 : 김상태 ((사)인천사연구소 소장)
장정구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
천영기 (학산포럼 대표)



코스상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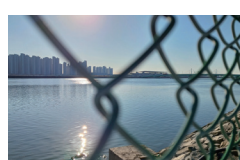


‘바다이음길1’

3.5km

개발로 인해 갯벌을 매립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미추홀은 바다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미추홀이 바다였음을 알 수 있는 ‘낙섬’사거리의 지명이 있고, 바다로 향하는 마지막 물길인 학익유수지가 있다. 옛 바닷길을 따라 걸으며 미추홀의 물길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원도사 터>낙섬사거리>청색해안기념비>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폐석회 매립지)>학익유수지(학익옹천갯골)>남항근린공원>삼각점(바다조망점)



원도사 터 낙섬은 미추홀의 섬이었다. 원도라고도 불린 낙섬에는 인천부사가 바다에 제사를 지내던 원도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낙섬사거리 인근 금호유치원 옆 도로변에 원도사터 표시석이 서 있다. 낙섬사거리, 낙섬동로, 낙섬중로, 낙섬서로 등 도로지명에서 낙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병자호란 때 의병 활동이 있었는데 낙섬이 육지(한양)와 강학(보장지치), 서해를 잇는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청색해안기념비 블루비치(청색해안)은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시 밀물과 썰물로 인해 나눠져 상륙한 3개 해안 중 하나이다. 블루비치는 낙섬 일대의 해안지역을 말하며, 이 곳에 상륙한 부대는 후방으로 우회해서 경인가도를 장악하여 인천을 고립시킴과 동시에 서울에서 오는 북한의 증원군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학익유수지 학익유수지(학익옹천갯골)는 미추홀의 남아있는 마지막 갯골로, 바다를 잇는 물길이다. 천연기념물이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중요한 휴식 장소이자 먹이터이며, 물수리와 검은머리물떼새, 흑부리오리, 가마우지, 백로류, 갈매기 등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철새도래지이다. 유수지 안에는 각각 학섬과 용섬으로 불려도 좋은 인공섬이 두 개 조성되어 있는데 밀물 때 물을 따라 들어오는 송어새끼떼를 관찰할 수 있다.

삼각점 과거 미추홀, 인천은 나아가 한반도는 능허대를 통해 서해로 나아가 세계와 만났다. 지금도 골든하버라 불리는 국제어객터미널을 통해 서해를 통해 중국 등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삼각점은 드넓은 바다 서해로 향하는 미추홀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다. 하루 두 번 자유롭게 오가는 밀물과 썰물의 바닷물의 장관에서 메마르고 정제된 원도섬의 이미지를 벗고 잊어버린 바다를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문학산길’

5km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은 건국 설화를 품고 있으며 비류백제의 도읍지로 역사를 깊이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인천향교와 행정기관인 인천도호부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인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옛 인천의 중심지인 문학산 일대를 걸어보며 바다로 진출하던 선인들의 기상을 느껴보게 좋은 코스이다.

인천향교>산신우물>문학산(배바위, 고마리길, 문학산성, 정상, 제사유적)>삼호현고개>문학터널>인천도호부



인천향교 향교는 공자 이하 유현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와 학생들을 모아 강습하는 학교가 병설되었으며, 그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건물들이 강학공간(명륜당과 동재, 서재)과 배향공간(대성전과 동무, 서무) 가까운 곳에 있다. 인천향교의 건물배치는 구릉지에 축대를 쌓아 건물을 배치했기에 전학후묘 방식을 취한다.



문학산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걸쳐있는 문학산은 학이 날개를 펴고 앉은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 전해 온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흔히 남산이나 배꼽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문학산에는 인천시 기념물 제1호인 문학산성과 유물이 발굴되었던 제단 시설인 제사유적, 그 밖에도 삼호현고개 등 주요 장소들이 모여있는 미추홀의 진산이다. 『여지도서』에는 ‘문학산 정상은 미추왕(비류)의 옛 도읍지’라고 기술하고 있어 인천 역사의 태동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산 정상은 본래 해발 233m이었는데, 군부대가 주둔한 이유로 16m가 깎여 현재 217m다. 또한, 정상에 오를 수 없었으나 2015년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인천도호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천도호부는 조선시대에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다. 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 동헌, 내동헌 등 15~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되어 있으며, 출입과 관람이 자유롭지 않다.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와 『화도진도(花島鎭圖)』를 근거로 하여 인천도호부관아의 주요 건축물을 인천향교 동편에 재현해놓았다.



‘바다이음길2’

8km

미추홀은 한반도에서 서해를 통해 나가는 관문이었다. 능허대는 공원으로 남아있으며, 드넓은 갯벌로 만우금이라 불렸던 송도갯벌은 매립되고 아파트가 솟았다. 그러나 북측으로 수로가 만들어졌고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보이는 능선이 과거 바다에서 인천을 바라보던 능선이 그대로 있다.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는 코스이다.

능허대공원>아암대로>아암도공원>송도달빛축제공원>송도북측수로>외암도



능허대공원 능허대는 백제시대 중국과 사신이 왕래하던 곳이다. 능허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도심 한가운데 작은 공원이 되었다. 실제로 사신의 배를 탔던 곳은 한나루이고 작은 언덕 위의 능허대는 사신들이 송별하던 곳이다. 능허대는 바다 쪽으로 돌출되었던 곳으로 드나드는 배를 마중하고 배웅하기 적합한 지형이었다.



아암대로 아암대로는 미추홀구의 능안삼거리부터 소래포구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왕복 4차로에서 14차로까지 넓은 도로로 인천향을 드나드는 대형 트럭과 송도신도시와 영종도를 오가는 차량들이 이용한다. 옛 송도유원지 앞 아암도를 지나면서 아암대로라 부르는데 송도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매립 개발되기 전까지 인천 서남쪽의 해안선이었다. 아암대로에서는 아암도와 청량산이 보이며, 그 능선이 과거 바다에서 인천을 바라보던 장면으로 느낄 수 있다.



아암도공원 아암도는 과거 송도해수욕장, 송도유원지 앞에 위치했던 무인도이다. 해안도로 건설과 함께 육지화되었다. 바위들은 바닷바람과 파도에 풍화되어 작은 해식동굴 등 다양한 형태의 해안선을 간직하고 있다. 주변 갯벌에는 갯질경이, 갯잔디, 칠면초 등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이며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한다.



송도북측수로 송도신도시를 만들면서 아암대로(해안도로)와 신도시 사이에 수로를 남겨놓았다. 유수지이기도 한 이곳은 중요한 바람길이고 친수공간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해양수산레저를 위한 체험과 교육이 진행되는데 수로를 따라 남측으로는 산책로와 함께 다양한 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산악자전거체험 구간도 있다. 간혹 철새와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여 친수공간으로 수질 등의 관리와 함께 건강한 생태계 회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공간이다.



‘학산서원길’

5.5km

문학산 주변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사액서원(조선시대에 왕으로부터 서원명 현판과 노비,서적 등을 받은 서원)으로 지어졌던 학산서원이 문학터널이 생기면서 훼손되어 현재 설명문이 부착된 자리만 남게 된 이야기, 미군부대의 유류저장시설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었지만 정화한 이야기, 그리고 바위에 얽힌 다양한 설화까지 이야기를 따라 걷다 보면 그때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양토마을>학익배수지>문학레포츠포공원>학산서원터>중바위. 갑옷바위>연경정>노적봉>송암점자도서관



학산서원터 숙종 28년(1702) 이정빈 등이 학문과 교화에 힘을 썼던 인천부사 정관재 이만상을 추모하는 서원을 건립하고자 국왕에게 상소해 왕의 허락으로 숙종 34년(1708)에 건립됐다. 건립과 동시에 정일빈 등이 사액을 청해 인천의 유일한 사액 서원이 됐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에서 ‘학산서원(鶴山書院)’이라 새겨진 와편이 발견됐고 그 주변에서 재실과 강당, 사당 건물 초석이 확인됐다. 그러나 도시 확장과 함께 다시 유실됐고 그 이후 문학산 출가에 표시석이 세워졌다.



중바위 옛날 청학동에 사는 스님이 시주하러 학익동으로 가기 위해 매일 이 고개를 넘어 다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갑자기 어여쁜 여인이 술잔을 받쳐 들고 나타나 석 잔을 공손히 바치고는 사라졌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술 석 잔이 성에 차지 않아 한 잔만 더 달래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바위 뒤로 사라졌고, 스님은 여인이 사라진 바위에 무릎 꿇고 머리로 바위를 받으며 “술 한 잔만 더 주오.”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 머리로 받은 자리에 구멍이 생겼고 무릎 자국과 손자국이 뚜렷이 새겨졌다.



갑옷바위 전설에 의하면, 옛날 어느 장수가 이 바위 아랫부분에 돌함을 파고 자기 갑옷과 투구를 감춘 다음 그 위에 무경바위를 덮어놓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바위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그런데 한 번은 문학산 꼭대기에 있는 안관당 지기가 이 바위를 깨뜨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확인할 작정으로 무경바위 아래쪽을 망치로 쳐 깨뜨리자, 청천벽력이 치고 천지가 진동해 당지기는 걸음이 날 설러리하며 도망갔다고 한다.



송암점자도서관 송암점자도서관은 1999년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11월 신축 개관한 인천 유일의 점자도서관이다. 시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글 점자인 ‘훈맹점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기념관이 있어 반드시 둘러볼 필요가 있다.



‘승기천길’

8km

인천의 대표 하천인 승기천. 도시개발로 물길이 변형되고 덮이면서 현재는 하류 구간만 볼 수 있다. 폭염과 폭우 등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한 지금, 도심에서의 물길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승기천의 열린 구간과 남동유수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이다. 그 길을 이어 걷다보면 메마른 도시 미추홀에서 자연생태 환경을 꿈꿀 수 있다.

중앙공원>승기천 정비 시작점>선학경기장>승기천>원인재>남동유수지(저어새섬)>동막역



선학경기장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인천 곳곳에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선학동 승기천 변에는 하기장과 방성경기장을 건설되었다. 경기장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0년경까지 이곳은 대부분은 논과 밭이었는데 민가와 밭 주변으로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의 팽공이 서식지였고 특히 논은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의 금개구리 서식지였다.



승기천 미추홀구 수봉산과 승학산 자락에서 발원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상류의 미추홀구 구간은 복개되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하류 구간은 열려있다. 옛 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남동유수지까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수질과 수량을 개선하고, 생태와 경관 보호를 위해 일정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의 서식지로 생태공간이기도 하다.



원인재 승기천 옆에 있는 원인재는 인천 이씨 종시조인 이허겸의 재실이다. 재실은 묘소에 딸려있는 전각이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로 원인재 옆에는 이허겸의 묘가 있다. 이허겸은 고려전기 인천의 대표적인 호족으로 이자겸의 고조부이다. 이자겸은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으로 삼팔자위환(十八子爲王) 참살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인재는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남동유수지(저어새섬) 남동유수지에는 저어새섬이 있다. 저어새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약 6천 마리뿐인 멸종 위기종이다. 2009년 이후 남동유수지에서 매년 100여 마리 이상이 태어난다. 시민들은 매년 저어새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저어새가 태어나면 생일잔치를, 가을 따뜻한 남측으로 떠날 때 환송 잔치를, 봄에 다시 남동유수지로 돌아보면 환영잔치를 열고 있다.



‘주인수인철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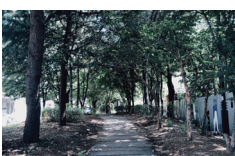
5km

미추홀구를 지나는 철길은 경인선·수인선·주인선 그리고 산업철도였던 동양화학선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주인선과 수인선은 흔적이 남아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한다. 현재 주인선은 ‘주인공원’으로, 수인선은 ‘수인선 바람길’으로 공원화되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 길을 걸으며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 역사성을 느껴볼 수 있다.

제물포역>과도고 흔적>주인공원>송의초등학교 앞 길>남부역자리>수인선 바람길>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동양화학선·극동방송



과도고 흔적 주인선은 주안과 인천항역의 앞 골자를 탄 것이고, 제물포역과는 특별한 관련은 없지만, 경인선 제물포역 옆의 선로를 따라 운행했기 때문에 제물포를 떠올린다. 또한 제물포역 옆 철로로 진입하기 위해 경인국도를 가로지르는 과도교를 설치했다. 1981년 과도교는 경인국도의 확장과 더불어 변화의 모습을 겪었으며 1997년 철거되었다.



주인공원 주인선은 주안역에서 인천항역(남인천역, 수인역)까지의 철도 노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인선은 1957년 착공되어 1959년 완공되어 부평,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미군 화물 운송과 군인 수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 주인선은 일시적으로 인천 거주 장애인대중자들이 남부역에서 논산 훈련소까지 임영열차를 타고 가는 철도로 이용되기도 했다.



수인선 바람길 수인선은 인천과 수원을 잇는 철도로 1937년 협궤철도로 부설되어 화물과 인력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국도 개통을 비롯한 도로교통 발달 등으로 산업철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1995년 폐선 후 방치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미추홀구는 2021년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철도유류부지 송의역-인하대역 1.5km 구간에 바람길숲을 조성, 숲세권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녹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양화학선·극동방송 동양화학 인천 공장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를 ‘동양화학선’으로 불렀다. 인천역 부속의 전용선으로 정식 노선은 아니었으며, 도심 확장에 따른 공장들의 이전과 함께 1995년 폐선되었다. 현재 철길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극동방송은 1954년 체신부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받고, 1965년 학곡동 588번지로 무선국을 이전하고 사설 방송인가를 받았다. 현재의 선교사 기숙사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극동방송이 지은 것이다.



‘수봉비룡길’

5km

인하대학교 내에 있는 호수와 숲길부터 비룡길의 비룡심터를 지나 미추홀구의 중심 산인 수봉산까지의 길을 이어보면 미추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숲길이 된다. 수봉비룡길은 자연이 숨 쉬는 미추홀구의 모습을 상상하며 걸어볼 수 있다.

인하대학교(수준원점)>비룡심터>수봉산(망배단, 인천지구전적비, 재일학도의용군참전비, 현충탑)>수봉문화회관>제물포시장



수준원점 우리나라의 국토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으로, 평균 해수면과의 차이를 측량하여 육지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다. 대한민국 수준원점은 인천만의 평균 해면상으로부터 26.6871m이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약 3년간 인천 앞바다의 간만의 차이를 측정하여 평균 해수면을 정하고, 이 평균 해수면과의 차이를 측량한 뒤 육지에 설치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수준원점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다.



수봉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과 용현동, 송의동에 걸쳐있는 산이다. 수봉(水峯)이란 ‘바다 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산’의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수봉산은 숲길 산책로, 생태와 경관 보호를 위해 일정 하천 자연환경을 갖춘 휴식 공간이면서, 수봉도서관과 수봉문화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용된다. 또한 1972년 인천 출신 6·25 전쟁 전몰장병 충혼탑(현충탑)을 자유공원에서 이전해 오면서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인천지구 전적기념비 등 6·25 전쟁 관련 각종 기념 시설이 건립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야간에 수봉별마루가 운영되고 있다.



제물포시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공원과 제물포역 사이에 있는 시장으로 1972년에 개설되었다. 1990년대부터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고, 건물의 노후화, 지역 주민의 고통학 등으로 제물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제물포시장 내부는 영화 ‘신세계’, ‘씨네’, ‘아수라’ 등 수많은 영화의 촬영 장소로 활용되었다